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5-05호 / 2005년 6월 28일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추이와 한·중 협력 전망

런왕빙(任旺兵) 服务业室 主任
发·改·委 宏观經濟研究院 产业发展研究所

I. 발표요지

1.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 현황

□ 2004년 중국 서비스산업의 총 생산액은 전년대비 8.3% 성장한 43,207.6억 RMB를 기록함.

- 그러나, GDP 대비 비중은 2001년보다 2.2% 포인트 감소한 31.9%를 차지함.

□ 서비스산업의 성장 속도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업, 통신, 부동산, 교육문화, 과학기술 등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임.

- 다만, 2004년 통계연감부터 새로운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통계수치와의 단순 비교는 다소 문제가 있음.

2. 중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및 관련 연구의 한계점

□ 중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 1990년대 서비스산업의 성장속도는 단지 2차 산업보다 뒤졌을 뿐이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전체 GDP 성장 속도보다도 뒤쳐져 있음.
- 특히 전통서비스업은 이미 포화된 상태임.
 - o 따라서, 향후 서비스업의 핵심발전부문을 현대적인 서비스업종이 대체해야 하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불과함.
- 1992년과 2002년 발표된 서비스업발전을 위한 조치 이후 관련 정책이 현재 실시 중에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낮은 상태임.
- 현재 서비스업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 중국 서비스산업 연구의 한계점

- 중국에서의 산업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1차 · 2차 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시간적 · 경험적으로 미천한 상태임.

3. 한 · 중 서비스산업 협력 전망

□ 한 · 중간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은 관광산업임.

- 현재 한 · 중 상호간의 관광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 따라서, 무비자 단기여행 허용, 수속의 간소화 등 관련 정책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중국의 황금연휴기간(5월 노동절, 10월 국경절 등) 중 중국인들의 한국여행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

□ 문화 · 스포츠 부문의 협력 가능성도 매우 큼.

- 문화적인 동질성과 함께 한류 드라마의 영향이 중국 문화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유럽연맹리그처럼 축구, 농구, 탁구 등 스포츠리그의 시행 가능성도 큼.

II. 토론 요지

問: 생산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答: 예를 들어, 대형백화점 등으로 구분되는 전통서비스업은 이미 과열 경쟁 상태에 있음. 반면에 생산서비스업은 기술서비스 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류, 법률, 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함.

問: 2004년 중국 서비스업 증가치는 GDP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얼마인가?

答: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그것은 통계처리과정에서 건축업과 농촌서비스업 등이 누락되었기 때문임.

問: 현재 도시이주 농촌인력의 다수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중국내 신규 채용인력 중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또한, 서비스산업 가운데 단순노동과 기술노동의 비중은?

答: 수년 전 국유기업의 수익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서비스산업이 신규취업인력을 100% 흡수하였음. 그러나, 최근에 국유기업의 수익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신규 취업하는 인력은 60~70%에 불과함. 2004년 신규 취업인력 1,300여만 명 중 900여만 명이 서비스업종에 취업함. 아직까지는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단순노동자들의 취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대 및 신흥서비스업종에 대한 취업도 점차 증가함.

問: 한·중 서비스협력은 공동연구나 공동개발을 의미하는가? 외국의 선진 서비스업 발전 경험 및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중 개방 확대 외에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특혜정책이나 조치는 무엇인가?

답: 중국은 현재 기술서비스업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 중, 한국의 기술서비스업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이 기대되고 있음.

중국정부가 취해온 외자유치정책은 주로 토지와 세수부분의 우대조치임. 이에 비해, 물, 전기 등 서비스부분의 비용은 매우 높은 편임. 이와 같은 차이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긴 어려우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우대정책은 가능하다고 봄.

問: 비록 브랜드 인지도는 낮으나 제조업은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이 있음. 그렇다면, 중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쟁력 제고방안은?

답: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태임. 제조업은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시장발전 정도에 따라 국제경쟁력과 외자유치가 결정됨.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임무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관광, 원양운송, 전통문화산업 등 일부 핵심부문을 선별하여 중점 발전시킬 것임.

問: 관광산업에 대한 한·중간 협력을 언급했는데, 관광시장의 개방일정은?

답: 기본적으로 WTO 일정대로 개방 중에 있는데, 일부 영역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있음. 한·중 양국간 협력은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인들이 황금연휴기간동안 한국을 여행하는 등 관광산업 부문에서의 협력 공간이 넓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問: 중국정부는 주로 어떤 산업이 신규 취업인력을 흡수하도록 권장하는가?

답: 어느 산업이 신규 취업인력을 흡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가능한 모든 산업에서의 신규 채용을 장려함. 제조업은 아직까지도 2,000여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농촌개혁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정원의 확대에 의해 대졸자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로 저학력자들이 진출했던 서비스업에 고학력자들의 취업이 증가 추세에 있음.

問: 중국의 지하경제 존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하경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참고로,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10%로 추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5% 정도로 추정됨.

答: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수치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임. 일부 학자들은 GDP의 20~30%까지도 보고 있으나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음.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11%로 보고 있음. 이를 건축업 및 기타 서비스업과 합할 경우,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약 40~50%에 달함. 그러나 실제 중국경제의 발전은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를 10%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問: 서비스업 중에서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고 공공서비스 투입압력이 존재하는가?

答: 아직까지 공공서비스업이 포함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공공서비스업이란 말은 단지 정부문건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농촌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도-농간의 격차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비롯됨. 이에 중국정부는 '11.5 계획'에서 공공사업부문에 대한 중점투자를 밝힌 바 있음.

問: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월마트 등 많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우대 또는 보호정책은 무엇인가?

答: 그러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음. 그것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전체 도·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작기 때문임. 반면에 중국정부는 그들의 관리경험 및 선진 경영기술이 국영 유통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많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問: 서비스업의 발전 속도가 제조업에 비해 느린 이유는?

答: 제조업은 주로 국제시장에 의해 발전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국내시장에 의해 발전함. 현재 중국서비스업은 주로 전통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어 시대

에 뒤떨어져 있음. 이에 비해, 신흥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매우 느린 발전 속도를 보임.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가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음.

問: 선진국의 3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차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은 그렇지 않음. 이는 정부의 투자가 지나치게 1·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시장이 곧 핵심요인이라고 생각됨. 예를 들어, 선물시장 등 미국의 서비스업은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현재 미국의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이르나 중국은 30% 정도에 불과함. 서비스업의 발전은 대규모 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무엇보다도 건실한 경제적 기초가 뒷받침되어야 함. 중국이 많은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세계적인 증권거래소가 중국에 설립되지는 않을 것임. 즉, 서비스업은 투자 외에도 기술발전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보다 빠른 의식의 전환을 요구함.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은 아직까지 낮은 단계에 불과하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상승할 것임.

問: 현재 광둥성, 절강성 등에서는 숙련공이 부족한 ‘민공황’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答: 이러한 현상은 일부 언론매체의 조작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함. 언론이 일부 공장에서의 구인난을 확대시켜 전체 노동력이 부족한 것처럼 과장 보도하고 있음. 또한,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일부 분야는 농민의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임.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정보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됨.(***)